歲壬寅第三回遵行退溪先生歸鄕路行畢後告由文

(임인년 제3회 퇴계선생 귀향 길을 따라 다 걸은 뒤 고유하는 글)

維歲次壬寅三月甲申朔　유세차 임인(2022)년 삼월 갑신삭

十七日庚子慶尙北道　십칠일 경자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는,

知事李哲雨敢昭告于　선사 퇴도이선생에게 감히 밝게

先師退陶李先生之靈.　고하나이다.

伏以,　엎드려 생각하나이다.

猗歟先生(의여선생),　훌륭하시도다! 선생이시여,

吾邦儒宗(오방유종).　우리나라의 으뜸 되는 선비이십니다.

學德冠世(학덕관세),　학문과 덕행은 세상에서 첫째 가시니,

誰不敬從(수불경종)?　누가 존경하며 따르지 않겠습니까?

七十而化(칠십이화),　일흔이 되도록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시어,

幾詣聖域(기예성역).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仰之彌高(앙지미고),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서,

北斗泰岳(북두태악).　마치 북두칠성이나 태산 같습니다.

不求聞達(불구문달),　이름나고 출세하기를 구하지 않고,

天爵是培(천작시배).　윤리도덕을 키워나갔습니다.

欲孝赴擧(욕효부거),　효도하고자 하여 과거에 응시해 본 것이지,

豈望鼎台(기망정태)?　어찌 정승급에 이르기를 바랐겠습니까?

時奸盈朝(시간영조),　그 때 간신들 조정에 가득하였고,

士禍荐疊(사화천첩).　사화는 거듭거듭 일어났습니다.

章甫首鼠(장보수서),　선비들은 눈치 보기에 바빴고,

道學絶跡(도학절적).　도학(道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先生堅志(선생견지), 선생께서는 뜻을 굳게 하셔서,
治經修德(치경수덕). 경전 공부하시고 덕 닦으셨습니다.
窮格不息(궁격불식), 궁리하고 연구하시기 멈추지 않으셔서,
乃蘇聖學(내소성학). 성인의 학문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四朝帷幄(사조유악), 4대에 걸쳐 경연에서 강의하셨기에,
國王特倚(국왕특의). 임금들이 특별히 의지하셨습니다.
歸鄉輒召(귀향첩소),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불렀는데,
奏疏屢辭(주소루사). 여러 번 상소 아뢰어 사양하셨습니다.

非果忘世(비과망세), 과감하게 세상을 잊은 것은 아니었으나,
研敎最樂(연교최락).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喜探蘊奧(희탐온오), 담긴 깊은 내용을 탐구하기 좋아하시어,
藏修泉石(장수천석). 산수 속에서 뜻 오로지하여 공부했습니다.

獻圖導學(헌도도학), 「성학십도」 바치시어 학문으로 인도하였고,
六條示治(육조시치). 「무진육소」로 정치가 무언지 보여주었습니다.
國之蓍龜(국지시구), 나라의 근본적인 모범이 되는 분이었고,
儒林首位(유림수위). 유림에서 으뜸가는 어른이었습니다.

立朝無施(입조무시), 조정에 계셨지만 아무 시행되는 일 없자,
要歸林壑(요귀임학). 초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出處大節(출처대절), 벼슬에 나갈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의 큰 기준,
義時是適(의시시적). 의리와 때에 맞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上章乞骸(상장걸해), 상소하여 고향에 돌아가길 빌었나니,
決意已確(결의이확).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穆陵屢挽(목릉루만), 선조 임금이 여러 번 불들고 불들다가,
竟許釋爵(경허석작). 마침내 벼슬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歸養陶山(귀양도산), 도산으로 돌아와 수양하면서,
誨撰不輟(회찬부철). 가르치고 시문 짓기 그치지 않았습니다.
覿德聞風(적덕문풍), 그 덕행을 보고 소문을 들은,
多士來質(다사래질). 많은 선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養成後學(양성후학), 후학을 양성하여,
道有傳脈(도유전맥). 도학에 전해지는 맥이 있게 되었습니다.
著書立說(저서입설), 책을 짓고 학설을 펼쳐,
裕後不歇(유후불헐). 후세에 도움주기를 마지않았습니다.

先生倡導(선생창도), 선생께서 앞장서 부르짖어 이끄시어,
吾邦有學(오방유학). 우리나라에 학문이 있게 되었습니다.
世世相承(세세상승), 대대로 서로 이어서,
稍昇國格(초승국격). 점점 나라의 격 높아져갔습니다.

一臥遊岱(일와유대), 한번 몸져눕자 바로 저 세상으로 가시니,
儀形永邈(의형영막). 그 풍모 영원히 아득하게 되었습니다.
著作留世(저작류세), 지은 글들이 세상에 남아 있기에,
訓語可接(훈어가접). 가르침의 말씀 접할 수 있습니다.

惠賜旣洽(혜사기흡), 은혜롭게 내려주신 것 이미 흡족하여,
鄙等蒙澤(비등몽택). 저들이 그 혜택 입고 있습니다.
何日敢忘(하일감망)? 어느 날 감히 잊겠습니까?
務遵道脈(무준도맥). 도의 맥을 힘써 쫓고자 합니다.

先生之道(선생지도), 선생의 도는,
做人之道(주인지도). 사람 되는 도리이고,
先生之道(선생지도), 선생의 도는,
淑世之道(숙세지도). 이 세상 깨끗하게 하는 도리입니다.

至於叔季(지어숙계), 말세에 이르니,
益量其値(익량기치). 그 가치 더욱더 알게 됩습니다.
眞珍在茲(진진재자), 참된 보배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不識何愧(불식하괴)? 알지 못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癘疫雖熾(려역수치), 전염병이 비록 기세 부리지만,
焉絆吾足(언반오족)? 어찌 우리들의 발 묶을 수 있겠습니까?
每歲遵行(매세준행), 해마다 선생의 길을 따라 걷는데,
誓永矜式(서영긍식). 길이 공경하여 법도로 삼고자 맹세합니다.

步到院庭(보도원정), 걸어서 서원 뜰에까지 이르러서,
虔告歷程(건고역정). 지나온 경과 경건하게 고한 답니다.
焚香再拜(분향재배), 향을 불사르고서 두 번 절하노니,
靈其鑒情(영기감정). 영께서는 이런 사정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洋洋降格(양양강격), 천천히 강림하시어,
茂賜眞詮(무사진전). 참된 가르침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敬遵正路(경준정로), 삼가 바른 길을 따르고자,
晝宵惓惓(주소권권). 밤낮으로 정성 다 쏟겠습니다.
後學 許捲洙 敬撰.